

##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행하는 교회' 라는 표어로 지난 2년간 열심을 다해 말씀 중심의 삶을 지켜 내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께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3. 오늘 주일 예배 직후에 연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저녁 8시에 모여 식사와 친교의 시간 함께 갖고 예배 드립니다.
5. 1월 5일, 다음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6. 1월 7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7. 1월 12일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제직회 겸 제직 교육이 있겠습니다.

### 1월 예배 위원

안 내	한규철		최명희	
기 도	박승화(5)	한광기(12)	최명희(19)	최상천(26)

###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교회 학교	청년회	수요 제자 양육	금요 제자 양육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2시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7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후 6:1



생명샘 장로교회 홈 페이지를 찾아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을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충만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심으로 감사 충만한 연말연시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후 6:1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 일 예 배 2024년 12월 29일 오후 1시

묵상 기도 / 다같이

\*찬송 /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찬송가 36(신) 36(구)

\*성시 교독 /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 찬송가 559(신) 305(구)

기도 / 조창 집사

성경 봉독 / 고린도전서 15장 57-58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감사는 더욱 힘쓰게 합니다 / 박화신 목사

찬송 /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 찬송가 539(신) 483(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 찬송가 301(신) 460(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 오늘 말씀 요약

1. 감사는, 뿌리를 예수의 말씀 안에 박고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은 자 담게 믿음에 굳게 설 때 비로서 가능해 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승리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2. 그 감사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는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3. 그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정체성(고후6:1-10)을 분명하게 하며 나아가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더욱 힘쓰는 자의 특권입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3-24년 표어

행하는 교회

> 뿌리를 박으라

골로새서 2장 6-7절

> 세움을 받으라

6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 굳게 서라

### 목.회.서.신. / '행하는 교회'는 계속 됩니다

에스라 부흥 운동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만큼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그리고 '뜻'을 가지고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소유인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던지 삶을 기쁘게 하고 신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는 유일한 기적의 원천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는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이 감사는 행함의 마지막 증거이자 또 다른 경지의 시작을 창조합니다.

말씀에 뿌리박으면 주님이 세워 주십니다. 세움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여러 환란과 유혹에 끊임없이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기 흉한 잎사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꽃을 채 맺기도 힘든 연약함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감사'를 지키는, 뿌리가 살아있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후6:10)가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